

## 미국 고용: 과열 우려를 덜어낸 것에 만족

- 미국 고용 4개월 만에 시장 예상치 하회, 실업률은 4.2%로 하락
- 고용 과열에 대한 우려는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아
- 연내 인상 허들 높게 보고 있으나, 시장의 인상 전망은 계속될 가능성

### 차가워진 시장이 원했던 뜨뜻미지근한 고용

미국 6월 비농업 취업자는 +5.7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11.4만 명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 달 고용 발표 당시 3-4월 수치가 +9.3만 명 상향 조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4-5월 고용이 도합 -7.4만 명 하향되었다. 실업률은 4.2%로 1년 여만의 최저치로 낮아졌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3%MoM, +3.5%YoY로 전년비 기준 소폭 확대되었다.

### 과열 우려는 덜었지만, 어딘가 째뼉한 둔화

워시 의장의 첫 FOMC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주식시장도 흔들렸던 시점에서 이번과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고용 데이터는 시장이 가장 갈망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직전 2개월 간의 고용이 하향 조정되면서 3개월 평균 고용 증가는 지난달 발표 당시 +18.8만 명에서 이 달 +11.1만 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을 키운 고용 시장의 '과열'에 대한 걱정은 일단 한 숨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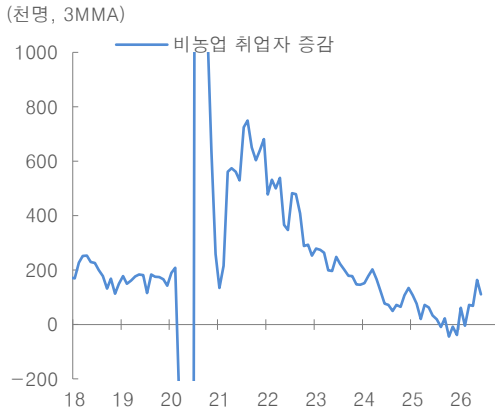
다만 이번 고용 데이터를 뜯어보면 6월과 같은 뜨뜻미지근한 고용 데이터가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데이터에 유난히 튀는(?) 숫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산업별로 보면 레저 부문의 고용이 월드컵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전월비 급감(-6.1만)했는데, 레저 부문을 제외하면 민간 취업자 증가는 5월 +5.7만 명에서 6월 +11.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체로 레저 서비스 취업자가 지금처럼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대개 1-2개월 내 반등했다.

두 번째로는 6월 노동참가율이 61.5%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추세와 달리 주 연령층인 25-54세, 그 중에서도 25-34세의 참가율이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6월 페이롤 데이터 응답률이 54.4%로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2024년 말 이후 최저치이며, 같은 6월 기준으로는 1992년 이후 최저치이다. 다음 달 큰 폭의 수정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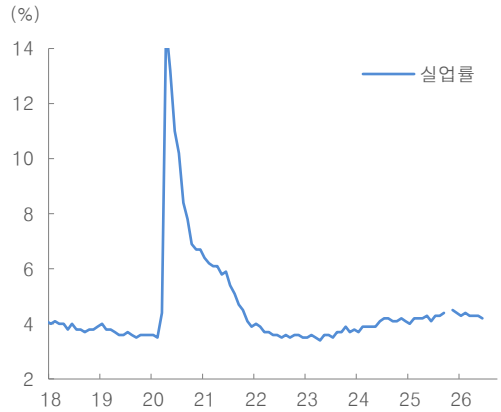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고용 추이가 하향되면서 노동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었다는 점에서는 소득이 있지만, 데이터의 퀄리티 등을 감안할 때 6월 한 달의 데이터에 큰 가중치를 두기는 어렵다. 워시는 시장이 지표를 보고 알아서 해석하라고 말했다. 전쟁 불확실성은 낮아졌고 유가도 급락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의 추세는 아래보다는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허들이 높을 수 있다는 시각은 변함없으나, 시장의 인상 프라이싱이 쉽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지난 3개월 평균 고용 +11.1만 명 증가



자료: CIB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실업률은 4.2%로 추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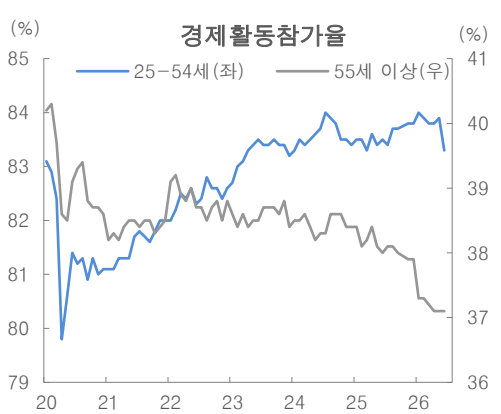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임금 상승률은 아직 추세 반전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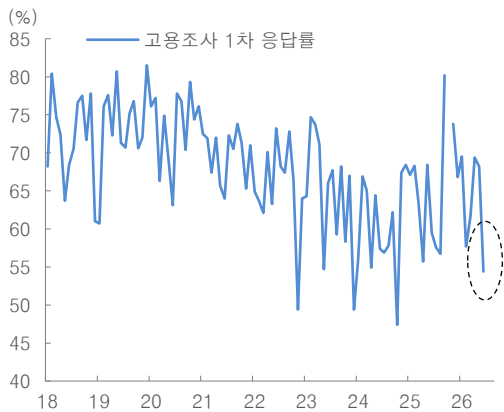
자료: CIB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주연령층의 노동 참가율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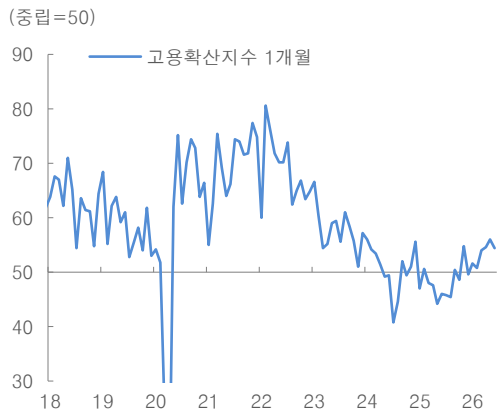
자료: CIB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유난히 낮았던 이번 고용 조사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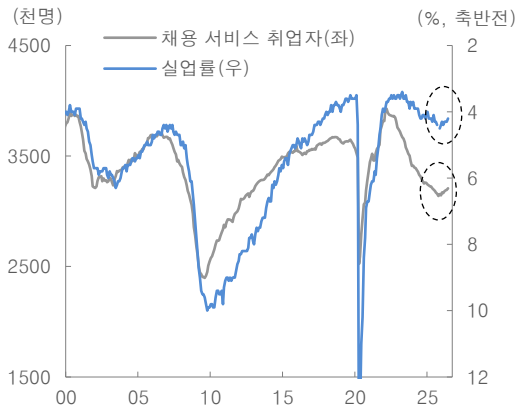
자료: CIB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아직 뜨겁진 않지만, 고용 시장의 추이는 여전히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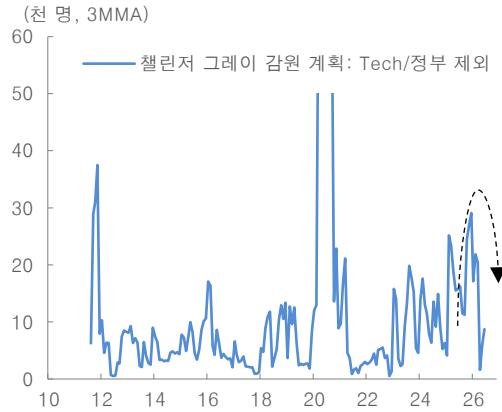
자료: CIB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채용 서비스 취업자는 반등, 실업률은 하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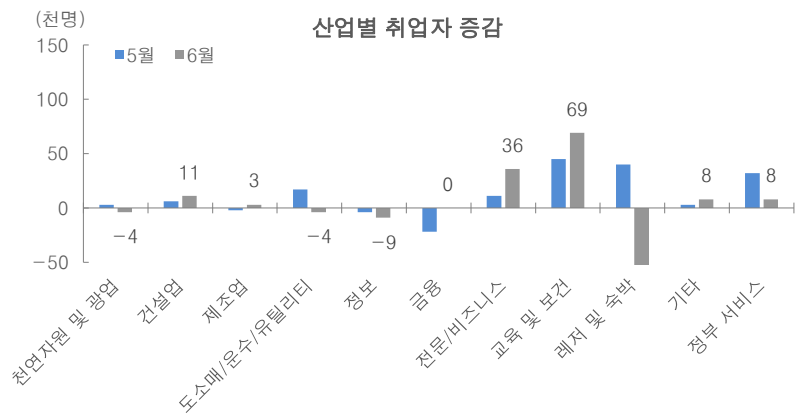
자료: CE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Tech 제외 민간 감원 계획은 급감



자료: CE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레저 제외하면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더 좋은 부문도 많아



자료: CE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이정훈)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